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P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ts Related Variables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채진영**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

Full-Time Instructor : Chae, Jin-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paternal parenting behavior. 160 fathers of five-year old preschoolers(85 boys and 75 girls) were recruited from 8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Korea and answered the questionnaire on the subject of attachment experience with their parents of origin based on their retrospective memories, marital satisfaction, spouse's gatekeeping, and their own parenting behavior as fathers cohabiting with their children.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ies, an independent sample t-test, Pearson's correlations,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15.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ernal parenting behavior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Second,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experience with their own mothers in childhood influenced all five subcategorie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parental involvement, limit setting, responsiveness, reasoning guidance, intimacy) and spouse's gatekeeping influenced father's reasoning guidance and intimacy. Unexpectedly, attachment experience with their own father had no impact on any subcategories of paternal parenting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의 양육행동(paternal parenting behavior), 원부모애착(attachment to parents of origin),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양육행동관리(gatekeeping)

I. 서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의 양육문제 공유와 가사분담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양육참여의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아버지-유아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아버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Lamb & Tamis-LeMonda, 2004; Parke, 2000).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Lamb, 2002). 개인의 경험은 문화의 다양성에 의해 달라지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계층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어린 시절 경험한 자신의 부모, 즉 원(元)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 2010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채진영 (E-mail : jychae@jbnu.ac.kr)

들 수 있다(Bretherton et al., 1990; Clarke & Dawson, 1998; Marchand et al., 2004). 이는 자신이 과거 경험한 요구에 대한 반응, 인식, 그리고 감정들이 이후 스스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 경험한 원부모의 혹독한 훈육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을 것이며, 이것이 내재화되어 이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혹독한 훈육 또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Simons et al., 1993), 보상심리차원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Chen & Kaplan, 2004; Van IJzendoorn, 1992). 더욱이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원가족과의 경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uillard, 199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정서적 경험이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부모가 된 후 나타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Luster & Okagaki, 1993)도 있는데, 부모의 양육행동은 결혼만족도, 직업경험 등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의 경로 모델을 제시하며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뿐 아니라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결혼 만족도 역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부관계의 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Belsky & Isabella, 1985; Engfer, 1990)에 의하면, 배우자를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제로 인식하는 원만한 부부관계는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거부 또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가 느끼는 낮은 결혼만족도는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무력감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 철회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이 된다(Belsky, 1984; Osborne & Fincham, 1996). 그러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비해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부족할 뿐 아니라 양육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결혼만족 정도와 양육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아버지가 보여주는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의 발달에 관한 아버지의 영향은 아버지-유아 관계 자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이나 양육신념, 또는 가족 환경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Lamb, 2002). 직업에 가지는 어머니가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다(Fagan & Barnett, 2003).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참여의 기회를 조절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행동을 '양육행동 관리(gatekeeping)'라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직업 유무를 떠나 이러한 통제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Allen & Hawkins, 1999). 양육행동 관리 역할은 어머니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정체성, 자녀 양육 등에 관해 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배우자 관련 요인으로써 주양육자로 인식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만 다루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의 영향에 대해 학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Pleck(1997)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는 아버지-유아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필요나 신념, 남편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아버지-유아 관계를 억제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Fagan & Barnett, 2003; Grossmann et al., 1988; Simons et al., 1993). 더욱이 일반가정에서나 이혼가정에서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라는 주장도 있다(Madden-Derdich & Leonard, 2000; Walker & McGraw, 2000).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 관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최근 한 연구(Schoppe-Sullivan et al., 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격려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질 높은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에 관한 극소수의 국내연구는 어머니가 측정된 자신의 양육행동 관리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지영, 2008; 조숙인, 2010)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아내의 양육행동 관리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행동한다(Parke, 1996). Cowan와 그의 동료들(1993)은 남아와 여아를 유사하게 대하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여아에게 더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아에게는 비슷한 민감성을 보인 반면, 여아에게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덜 민감하게 행동한다고 보고한 연구(Schoppe-Sullivan et al., 2006)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Sowin과 Parke(1992)는 영아가 생후 3주, 3개월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놀이 유형을 관찰한 단기종단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를 계속 다르게 대하여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였다. 반면 남아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고 여아에게는 관대하며 애정적으로 대하는 등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상호작용 양식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한 연구(Farver & Wimbari, 1995; Kindlon & Thompson, 1999)도 있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강란혜, 2000)도 있는 등 자녀의 성별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자녀의 성별 선호도에 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아버지는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가족의 형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요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러한 변인들의 가지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함께 파악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K구, G구, S구 지역에서 임의선정된 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의 남아 85명(M= 65.5개월, SD=3.4), 여아 75명(M= 65.2개월, SD=3.6)의 아버지 160명이었다.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으로 질문지가 총 226부 배포되었고, 176부가 수거되어 77.9%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0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첫째(57.5%)였고, 73.1%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아버지의 절반

이상이 36-40세였고(53.1%), 대도시에서 성장했다고 응답한 수도 과반수 가까이 되었다(49.4%). 전체 아버지 가운데 75.6%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력은 높은 편이었다. 회사원, 공무원, 엔지니어 등의 기술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아버지는 51.9%였으며,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수준 월 301만원(통계청, 2008)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반수 이상(61.3%)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ease 등(1979)이 개발한 아이오와 부모행동 측정 목록 중 아버지용(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PBI: FF)을 노현미 등(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착과 관련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잘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Crase et al., 1978),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동도서나 참고 서적, 또는 음반 등을 찾아 본다” 등의 과업추진 관련 7문항,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밀거나 밀어 제친다면 아이에게 주의를 준다” 등의 제한 설정 관련 8문항,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에게 즉시 달려간다” 등의 반응성 관련 7문항,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등의 합리적인 지도 관련 9문항, “아이를 꺼안거나 쓰다듬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한다” 등의 친밀성 관련 3문항 등 5개 하위 영역에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며, 자녀의 생활과 행동을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하면 더 많은 반응을 해 주고,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5개 하위 요인의 Chronbach의 α 계수는 각각 .83, .66, .78, .85,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아버지가 아동기 때 경험한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Hazan와 Shaver(1992)이 개발한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번안한곽소현(2005)의 질문지 중 의미가 겹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을 사용하여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과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을 각각 회상하여 측정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등의 안정,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갈보

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했다” 등의 불안, “나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필요했다” 등의 회피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7점 척도 리커트 척도인 것을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바꾸어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불안과 회피를 나타내는 6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때 형성한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은 안정적으로 회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원아버지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Chronbach의 α 계수는 각각 .8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Olsen 등(1982)이 개발하고 ENRICH(Enrich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위 영역인 결혼만족도 척도를 고정자와 김갑숙(200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결혼생활에 있어 부부가 역할책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의 부부의 역할 책임, “부부의 애정표현 방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의 애정표현, “처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처가 관계 등 총 11개의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높음을 의미하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93으로 신뢰 수준은 높았다.

4)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아버지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는 Fagan과 Barnett(2003)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배우자의 자녀 양육에 간섭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개발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아버지가 작성하도록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아내는 아이의 훈육을 아버지인 내가 아닌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자의 신념과 행동을 아버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배우자의 관리가 심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8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이 산출되었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영향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다회귀분석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TOL)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측정하는데, 그 값이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회귀모델이라고 한다(성태제, 2008). 잔차간의 상호독립성에 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정상분포를 나타내는 이 수치가 2에 가까울수록 상호독립적이다(배병렬, 2007).

III. 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감)의 차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제한설정과 관련하여 남아 아버지와

<표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

		원아버지 애착	원어머니 애착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	양육행동				
						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태도	친밀감
점수분포		15-75	15-75	11-55	9-45	7-35	8-40	7-35	9-45	3-15
남아 (N=85)	M	44.64	47.06	39.68	19.20	24.48	29.73	25.81	34.34	11.49
	SD	5.90	4.55	7.20	4.93	4.40	3.71	4.29	4.79	1.85
여아 (N=75)	M	45.43	46.96	39.13	19.91	23.65	29.73	26.44	34.16	11.64
	SD	3.78	3.74	6.73	5.17	3.94	3.63	3.70	3.68	2.03
t		-1.00	.15	.50	-.89	1.25	-.01	-1.00	.27	-.48

여아 아버지의 점수($M=29.73, SD=3.71$)는 같았지만, 남아 아버지는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M=47.06, SD=4.55$), 결혼만족도($M=39.68, SD=7.20$), 과업추진($M=24.48, SD=4.40$), 합리적 지도($M=34.34, SD=4.79$)에서 여아 아버지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및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의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관련 변인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남아 아버지와 여아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에 관한 배우자의 관리는 합리적 지도($r=-.15, p<.05$)와 친밀감($r=-.17, p<.05$)과 각각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과업추진, 제한설정, 반응성과는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내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관리한다고 느낄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아버지와 원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인수록,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고, 생활과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하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서라도 더 많은 반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 있는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아버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가운데 과업추진에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beta=.31, p<.001$)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beta=.19, p<.001$)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회귀 모델에 아버지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3%의 설명력($F=13.10, df=159, p<.001$)을 보였다. TOL값은 .99, VIF값은 1.01, Durbin-Watson값은 2.00으로 나타나 적합한 회귀모델을 나타내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제한설정에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beta=.27, p<.001$)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beta=.27,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자녀의 생활과 행동을 일정한 제한을 제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회귀모델에 결혼만족도와 아동기 때 형성한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5%의 설명력($F=14.67,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9, VIF=1.01, Durbin-Watson=1.99).

<표 2>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a. 원아버지 애착 경험	1.00								
b. 원어머니 애착 경험	.51**	1.00							
c. 결혼만족도	.29**	.11	1.00						
d.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	.23**	.20*	-.16*	1.00					
e. 과업추진	.27**	.22**	.33**	-.12	1.00				
f. 제한설정	.23**	.30**	.30**	-.08	.44**	1.00			
g. 반응성	.31**	.33**	.31**	-.05	.61**	.37**	1.00		
h. 합리적 지도	.23**	.23**	.34**	-.15*	.69**	.60**	.60**	1.00	
i. 친밀감	.23**	.26**	.43**	-.17*	.40**	.44**	.49**	.57**	1.00

* $p<.05$, ** $p<.01$

<표 3> 아동기 애착 경험, 결혼만족도, 아내의 양육행동관리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 ²	adj.R ²	F
과업촉진	결혼만족도	.19	.31	.11	.10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19	.19	.14	.13	13.10***
제한설정	결혼만족도	.14	.27	.09	.08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3	.27	.16	.15	14.67***
반응성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9	.30	.11	.11	
	결혼만족도	.16	.28	.19	.18	17.93***
합리적 태도	결혼만족도	.18	.29	.11	.11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24	.23	.15	.14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	-.13	-.15	.17	.16	10.95***
친밀감	결혼만족도	.10	.37	.18	.18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11	.25	.23	.22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	-.06	-.16	.25	.23	17.18***

***p<.001

반응성에는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beta=.30, p<.001$)과 아버지의 결혼만족도($\beta=.28, p<.0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하고 현재 결혼생활을 만족할수록 자녀가 필요로 하면 더 많은 반응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회귀모델에도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과 결혼만족도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8%의 설명력($F=17.93,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9, VIF=1.01, Durbin-Watson=2.07).

합리적 지도에는 결혼만족도($\beta=.29, p<.001$)과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beta=.23,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beta=-.15,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관리를 덜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행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용되는 행동과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과 관련된 회귀모델에는 결혼만족도,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16%의 설명력($F=10.95,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2, VIF=1.08, Durbin-Watson=2.11).

마지막으로 친밀감에도 합리적 지도와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beta=.37, p<.001$)과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beta=.25, p<.001$)은 정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beta=-.16,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안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배우자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관리를 덜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감과 관련된 회귀모델에도 결혼만족도,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배우자의 양육행동관리의 순으로 투입되어 총 23%의 설명력($F=17.18, df=159, p<.001$)을 보였으며, 적합한 회귀모델의 범주에 속하였다(TOL=.92, VIF=1.08, Durbin-Watson=2.10).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근래 아버지의 질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 다르게 행동한다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Cowan et al., 1996; Kindlon & Thompson, 1999; Parke, 1996; Schoppe-Sullivan et al., 2006)이지만, 한국의 중상류층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강란혜(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사회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하여 생겨난 비전통 가정에서 자녀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아선호사상 역시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덜 민감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원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관한 배우자의 관리는 합리적 지도와 친밀감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 뿐 아니라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Belsky(198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를 대할 때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가운데 반응성은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지만 다른 양육행동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유아기 자녀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은 결혼만족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회상한 아동기 때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은 아버지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80% 이상이 36~45세로 그들이 아동기를 보냈던 지난 1970년대 시대상황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로 아버지는 가외(家外)활동에, 어머니는 가내(家內)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역할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김인홍, 1997).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고,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보살피는 역할은 주로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영향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전통적 가족주의,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형태로 나타나 강한 아버지 상(象)을 형성하였다(한경혜, 1997).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 부양의 의무감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족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외적인 성공을 빨리 이루도록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과의 생활을 희생하는 경향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김영희, 1994).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도 적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부족했던 아버지와 상호작용이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저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버지가 원아버지에 대해 지니는 애착표상을 형성하게 한 원아버지-아버지 간의 정서적 관계는 전생애적 관점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동기 때 원아버지가 보여준 아버지기(fatherhood)와 아버지가 현재 보여주는 아버지기는 분명 살아온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의 효과를 동시대 출생집단의 효과(cohort effect)라 하는데, 바로 이 두 세대가 겪는 동시대 출생집단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애착관계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발달수준에서 그 시대의 특성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주는 영향에 따라 사고나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옥분, 2007). 따라서 70년대에 아동기를 보냈던 본 연구 대상 아버지의 원아버지 세대는 양육자의 모습보다는 경제부양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회 속에서 경제 발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원아버지와의 애착 경험 보다는 전통적으로 그 정서적 유대관계가 강했던 어머니-아들의 관계가 이후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 양육에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 출생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의 역사나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사회적 변화를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여 무리한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정옥분, 2007).

한편, 배우자의 양육행동 관리가 적을수록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 합리적인 지도와 친밀감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의 중간자 또는 관리자적 역할이 적어야 아버지 스스로 합리적인 훈육을 하며 자녀와 독립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동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인물이 아닌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극적인 공헌자의 역할(Lamb, 1975)을 수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 대한 주책임을 스스로 부여하고 배우자인 아버지를 양육의 보조자 역할로 인식하며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통제 및 관리하려는 일부 어머니들(Fagan & Barnett, 2003)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관리가 없으면 아버지가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우려(Allen & Hawkins, 1999; Grossman et al., 1988; Lamb & Tamis-LeMonda, 2004)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회

적인 변화와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지위에 따른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더 복잡한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Cabrera et al., 2000; Grossman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본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과 인구 사회학적 변인인 배우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생활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요인, 양육지식 및 효능감 등도 포함시켜 더욱 입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인 자료를 보강한다면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관해 한층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란혜(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 양육행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1(2), 119-133.
- 고정자 · 김갑숙(2000).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1-14.
- 곽소현(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 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4).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 양육 참여. *한국농촌생활과 학회지*, 5, 43-56.
- 김인홍(1997). 아버지 像의 역사적 변천. *교육사회학연구*, 7(1), 73-84.
- 노현미 · 박인전 · 박영애(1999). 유아 및 가족 배경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한국가족복지학*, 4(2), 191-214.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성태제(2008).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이지영(2008).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과 자녀 양육 참여 -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7).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조숙인(2010). 어머니의 취업 및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www.kostat.go.kr
- 한경혜(1997). 아버지의 변화.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Allen, S. M. & Hawkins, A. J.(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99-212.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Isabella, R.(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retherton, I., &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and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brera, N. J., Tamis-LeMonda, S.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hen, Z. & Kaplan, H. B.(2004).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7-31.
- Clarke, J. I. & Dawson, C.(1998). *Growing up again: Parenting ourselves, parenting our children(2nd ed.)*. MN: Hazelden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ervices.
- Couillard, M.(1999).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use, S. J., Clark, S. G., & Pease, D.(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Engfer, A.(1990).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83-103.
- Fagan, J. & Barnett, M.(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paternal competence, mothers' attitudes about the father role, and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8), 1020-1043.
- Farver, A. M., & Wimbarti, S.(1995). Paternal participation

- in toddlers' pretend play. *Social development*, 4(1), 17-31.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Hazan, C. & Shaver, P. R.(1992). Broken attachment. In Orbach, T. L. (ed.), *Close Relationship Loss: Theoretical Approaches*, Springer-Verlag: N.Y..
- Jeon, H. J.(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Cornell University.
- Kindlon, D. & Thompson, M.(1999). *Raising cain: Protecting the emotional life of boys*. 문웅린 역(2007). *아들 심리학*. 서울: 아람드림미디어.
- Lamb, M. E.(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mb, M. E.(2002). Infant-father attachments and their impact on child development.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amb, M. E. & Tamis-LeMonda, C. S.(2004). The role of the father: An Introduction.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N.Y.: Wiley.
- Luster, T. & Okagaki, L.(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Lawrence Elbrum.
- Madden-Derdich, D. A. & Leonard, S. A.(2000). Parental rold identity and fathers' involvement in coparental interaction after divorce: Fathers'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49, 311-318.
- Marchand, J. F., Schedler, S. & Wagstaff, D. A.(2004). The role of parents' attachment orientation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 behaviors in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449-462.
- Osborne, L. N. & Fincham, F. D.(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 Palmer Quarterly*, 42, 48-75.
- Parke, R. D.(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김성봉 역 (2007).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서울: 샘터.
- Parke, R.(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 Pease, D., Clack, S. G., & Crase, S. J.(1979).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Father Form*.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Pleck, J. H.(1997).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rd. ed.)*. N.Y.: Wiley.
- Pleck, J. H. & Masciadrelli, B. P.(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S. residential fathers: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N.Y.: Wiley.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398.
- Shears, J. & Robinson, J.(2005). Fathe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Child Care in Practice*, 11(1), 63-79.
- Simon,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van IJzendoorn, M. H.(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1), 76-99.
- Walker, A. J. & McGraw, L. A.(2000). Who is responsible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563-569.

접수일 : 2011년 06월 10일

심사일 : 2011년 07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9월 29일